불교 라디오 효시… 전파포교 이끌다

개국 30주년 BBS불교방송 걸어온 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90년 5월 1일 첫 방송 시작
'방송포교'란 신조어 만들어내
최초 이웃돕기 프로그램 제작
스타 발굴… 불교 대중화 견인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2천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BBS불교방송의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FM101.9MHz,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방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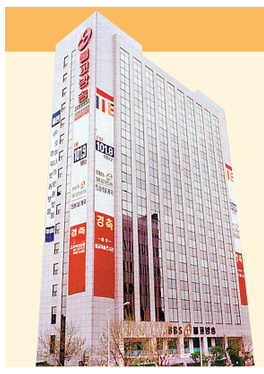
1990년 5월 1일, BBS불교방송(Buddhist Broadcasting System, 이하 BBS)이 첫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순간이다. BBS의 개국은 한국불교 역사를 새로 쓴 획기적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의 종교방송은 1954년 개국한 기독교방송(CBS)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지상파 불교방송 개국은 2000만 불자의 염원이었다. 여기에 불교방송국 건립을 평생의 서원으로 삼았던 故 대원 장경호 거사와 그 유지를 이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원력이 모여 BBS는 개국하게 됐다. BBS의 개국으로 한국은 세계 유일의 지상파 불교방송국을 보유한 국가가 되기도 했다.

지난 30년간 BBS는 중견방송사로 빠르게 성장했다. 1995년 부산, 광주를 시작으로 1996년에는 대구, 1997년 청주, 2002년 춘천, 2008년 울산, 2018년 제주 지방국을 개국해 전국 네트워크 체제를 완비했다. 2008년에는 미디어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BBS는 라디오 매체로서의 위상을 탈피해 시사주간지 '판판뉴스'를 창간하기도 했으며 이후 인터넷 뉴스를 전송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BBS TV를 개국해 BBS는 라디오 · TV · 인쇄 ·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불교 종합미디어로 성장했다.

BBS 개국의 의미는 '방송포교'라는 새로운 포교 개념과 장르를 구축했다는 데 있다. 지금도 전체 방송의 80% 이상은 경전공부, 스님의 설법, 고승의 이야기를 엮은 드라마, 불교문화와 역사, 명상음악, 참선, 마음공부, 사찰순례, 불교뉴스 등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포교 프로그램들로 만들고 있다. 라디오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1일 22시간 방송되며, TV는 전국 2천3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방송된다.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자비행에도 앞장섰다. 1991년부터 방송된 '거룩한 만남'은 지상파 방송 사상 최장수 이웃돕기 모금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 30년 가까이 방송되며 120억 원 가량을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했다.


4월 28일 열린 BBS불교방송 기념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축하 떡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석 스님,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이사장 종하 스님, 이선재 사장, 배금자 변호사.



숫자로 보는 BBS불교방송 30년

30년	불교방송 역사
19개	BBS라디오 주파수
2760만	BBSTV 가청가구수
73000명	만공회원 인원
120억원	'거룩한 만남' 전달액

불교 라디오 방송은 불교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방송을 통해 스님들이 소개되며, 어렵기만 했던 불교를 친숙하게 다가가게 만든 계기가 됐다. 이른바 '스타급 스님'들이 발굴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스님이 힐링멘토 정목 스님이다. 스님은 최초 이웃 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의 초대 진행자로 방송이 자리잡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1990년 첫 방송 이래 30살의 어른이 된 BBS는 앞으로 30년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있다. 2015년 BBS는 '방송포교후원 10만 공덕주'를 목표로 후원조직인 '만공회'를 출범했다. 현재 7만 3000명이 만공회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며 방송포교 불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종합 미디어 방송사로 자리잡은 BBS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방송 광고시장의 급격한 침체 속에서 재정적 자립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하며 모바일과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야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은 30주년 기념식에서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잠재적 불자들을 불교의 세계로 이끄는 일이 BBS의 본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뉴미디어와 TV, 라디오 분야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불교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효학술상 대상에 권오민 경상대 교수

진흥원 발표… 특별상 박경준 교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2020년 제10회 원효학술상' 학술부문 대상 수상자로 〈상좌 슈리라타의 경량부 사상〉을 쓴 권오민 경상대 철학과 교수〈사진〉를 선정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학술부문 특별상 수상자로는 저서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를 낸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가 꼽혔다. 권 교수에게는 상금 2천만원이, 박 교수에게는 상금 1천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원효학술상 학생부문 은상에는 동국대(경주캠)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성제스님과 동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조현길 학생, 중앙승가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현서스님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각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진흥원은 2019년 11월 제10회 원효학술상 공고를 낸 이후 2020년 2월 28일까지 응모된 총 29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수상작)를 선정했다. 노덕현 기자

17세기 佛母 현진 스님 첫 작품 '보물'된다

백양사 아미타좌상 지정예고
가장 이른 시기 조성 작품
남장사 관음선원 관음좌상도

17세기 불교조각 대가인 현진(玄眞) 스님의 첫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 17세기 불교조각 조성에 큰 자취를 남긴 조각승 현진 스님의 가장 이른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5세기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또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병'은 가치 재검토를 거쳐 국보 해제를 예고했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약 208cm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1607년(선조 40년) 조각승 현진 스님이 주도하고 휴일 · 문습이 함께 참여해 조성했다.



조각승 현진 스님은 17세기에 가장 비중있게 활동한 조각승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구에 의해 소실된 불상 복원 조성을 주도했다. 그는 1622년 광해군비 유씨가 발원한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의 불상 11존(尊)을 지휘하는 등 왕실과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뛰어난 불모였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대좌 밑 묵서에 의하면 왕실의 선조들인 선왕 등의 명복을 빌고 성불(成佛)을 기원하며 1607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한 규모에 긴 허리, 원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 신체의 굴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 등에서 초창기 작품임에도 현진의 뛰어난 조각 실력과 더불어 17세기 불교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 스님의 작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며 "현진 스님의 활동 지역과 작품 세계,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 예술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 새 회장에 고영섭 교수

시민강좌 · 불교사 통섭 강좌 추진 예정

한국불교학회 제24대 학회장으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4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2차 임시총회를 열고 고영섭 교수를 신임회장(대표이사 겸직)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고영섭 신임학회장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불교 경전의 수사학적 표현의 연구〉로 석사학위를, 〈문아 원측과 그 교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로 후학양성에 나서고 있다. 논문과 저서 편찬도 활발히 진행해 〈한국사상사〉 〈불교입문〉 등 저서 91권과 〈한국불교사 연구의 방법과 문법〉 등 논문 125편을 펴냈다. 한국불교학회서는 간사부터 시작해 일반이사와 편집위원장 및 법인이사, 학술기획부회장 등을 맡아 학회 사무를 책임졌다. 학계에서는 한국불교사 연구에 앞장서 한국불교사학회장, 한국불교사연구소장,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고 신임학회장은 임기동안 불교학의 전문성을 잃지 않으며, 대중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고 교수는 "한국불교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인문학을 불교학의 이름으로 선두에서 이끌어왔다"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불교학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깊은 관심과 넓은 참여가 이뤄지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봉축 맞아 불서 1700권 지원

전국 군법당 등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4월 23일 불기 2564(202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서 1700권을 전법현장에 전달했다.

진흥원 불서 지원은 '어린이,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4월 22일부터 전국 군법당 130여 곳과 전국 초중고 종립학교 불교 동아리 20여 곳 및 전국 대학생 불교 동아리 50곳에 전해졌다. 불서는 도서출판 민족사, 불광출판사, 모과나무, 운주사에서 발행한 〈죽음을 명상하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단행본 3종과 〈원효대사〉 〈경허스님〉 등 만화불서 5종 등이다.

한편, 진흥원은 자비나눔을 위한 불서보급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2010년 어린이, 청소년법회 진행 사찰 450여 곳에 3,000여 권의 만화 불서를 2011년 전국 군법당 140여 곳에 1천여 권의 만화 불서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5월 프로그램 안내

www.koreatemplefood.com

월별강좌

	화(오전) Tue	화(오후) Tue	수(저녁) Wed
	계절이 깃든 사찰음식 10:00~12:00	계절이 깃든 사찰음식 14:00~16:00	계절이 깃든 사찰음식 19:00~21:00
	강사:홍승스님 3회 참가비:11만원	강사:홍승스님 3회 참가비:11만원	강사:유화스님 4회 참가비:15만원
1회차 (1st)	5/12 부지깽이나물밥 가지간장양념구이 연근들깨구이	5/12 취나물잡채 두부우엉조림 견과류된장찌개	5/6 머위찜 머위장아찌 머위대새송이풋고추볶음
2회차 (2nd)	5/19 사찰식비빔밥 상추냉국 머위들깨탕	5/19 가지새싹전 더덕버무리 버섯초회	5/13 방풍나물도토리전 방풍나물배초무침 방풍나물밥
3회차 (3rd)	5/26 두부김밥 토마토물김치 오이무채소박이	5/26 감자채마요네즈무침 새송이버섯구이 수수감자전	5/20 취나물잡채 취나물두부버무리 쌈바귀사과초무침
4회차 (4th)			5/27 미나리오이김치 냉이두부유부초밥 냉이다시마국

1일체험

금 Fri	토(오전) Sat	토(오후) Sat	일 Sun
3소식 사찰음식 10:00~12:00	Let's learn Korean Temple Food 10:30~12:00	봄나물 특강 14:00~17:00	일요사찰음식체험 10:30~12:00
강사:혜범스님 1회 참가비:2만원	Bo Jun Sunim in English | One Time Price 10,000won	강사:유화스님 1회 참가비:4만원	강사:경현스님 1회 참가비:1만원
5/8 봄나물비빔국수 미나리들깨찜	5/9 Flower pancake (화전)		5/10 가죽전
5/15 들깨즙시금치칼국수 단호박깻잎튀김	5/16 Rice wrapped in Spring Herbs (봄나물쌈밥)	5/16 두부강황구이버무리 오이말이밥 쑥설기	5/17 봄나물쌈밥
5/22 미나리전 야채장아찌	5/23 Perilla soup with butterbur (머위들깨탕)		
5/29 풋고추장떡 오이옹심이미역국			

• 모든 강좌는 정원 12명(2인 1조)입니다. •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는 사찰음식의 원형메뉴 위주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외국인을 위한 맞춤요리도 진행)

▶ 홈페이지 예약 koreatemplefood.com 회원가입 후 로그인시 수강이력 확인가능
▶ 관련 문의 전화 : 02-733-4650 이메일 : info@templestay.com
▶ 예약시 주의사항 1.수업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입금 / 미입금 시 자동취소 2.수업일로부터 3일전까지 전액 환불가능, 이후 환불 불가 3.예약마감 시 전화로 대기접수 가능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1-425-130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Korean Temple Food Center
운영시간 월요일 휴관, 화~일요일 09:00~18:00
주소 0306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2층(안국역 1번출구)
전화 02-733-4650
이메일 info@templestay.com

